東友會報

發行人 鄭在哲
編輯人 尹天泳
印刷人 李揆行

發行人
서울特別市 中區 筆洞
3街26 東國大學校 內
東國大學校
同窓會
直通 (267) 8568
交換 (267) 8131~9
非賣品

우편대체구좌번호
525669번

本會는 同門相互間의 友宜增進과 母校發展에 기여키 위한 事業을 전개한다.

會長團의 회의

奬學사업 推進案 신중 檢討

"각종會費 自進納付"당부

會長團, 분담금 1백만원으로

본회 제2차 會長團회의가 지난 8월25일 正午 鄭在哲회장을 비롯, 文泰植 洪鳳來 金聖涉 洪淑子 孟殷在부회장등 회장단과 金正雄 李能熙감사, 朴忠煥 재단파견임원 연석으로 앰배서더2층 귀빈실에서 열려 본회 제반운영사항을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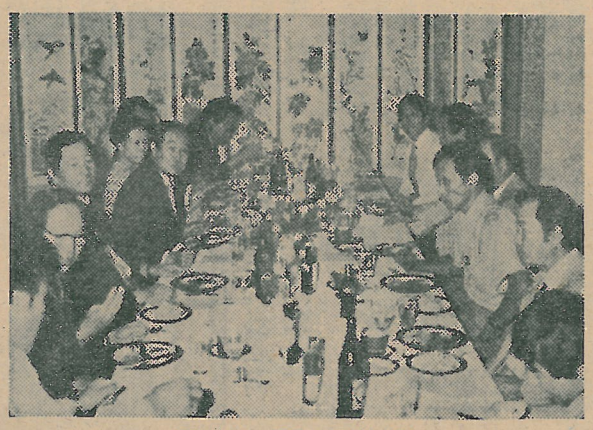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本會운영 원활화및 장학사업 추진등을 위해서는 각종 會費制 정착이 先行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뒤, 회장단부터 분담금 1백만원을 솔선수범, 조속납부키로 했다. 또한 이자리에서는 종전까지 상부이사와 동급이던 감사회비와 재단파견임원회비를 50만원으로 引上 조정하는 한편, 각종회비의 조속수납을 위해 9월중 협조공문을 발송할 것도 결의했다.

이날 회의는 이어 우수한 후배들의 勉學熱고취를 위한 장학사업 추진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각종 회비수입 극대화, 예산절감, 有力등문 적극 유치등을 통해 보다 충실하고 알찬 결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짐했다.

장학규모에 대해서는 이날 대다수회장단이 신중을 기하자고 주장, 결론이 보류되었으나 본회사상 가장큰 금액이 된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모금방법등은 추후 결정키로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東友會報광고스폰서 확대, 재학생간부 초청간담회개최 등이 논의되었다.

한편 이날 회장단회의는 美시카고동우회 吳泰銀회장과 南秉國前총무 환영오찬도 겸했는데, 해외지부활성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기도했다.


◇제 2 차 회장단회의광경.

榮進 축하모임 가져

仁川지부 지역발전 앞장다짐

인천지부(회장=孟殷在) 이사회겸 영전·승진동문축하회가 지난 7월24일 오후 인천시내 화선장에서열려 지부발전을 위해 다함께 적극 동참할것을 결의했다.

同지부 金殷夏명예회장(국회의부의장), 孟殷在회장(국회의원)과 영진동문인 金璨會(인천직할시장) 李鍾國(해경관리부장) 金容聲(인천직할시 기획관리실장) 동문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모임에서는 『동국인의 긍지로 지역사회개발과 국가발전에 앞장설것』 등을 다짐했다.

具氏書(73경제·서울신탁은행 동인천지점대리) 총무사회로 진행된 이날 모임은 명예회장의 환영사및 榮進동문소개, 孟회장의 인사와 金시장등 영진동문들의 답사가있었으며 본회 尹天泳사무국장은 모교소식과본회근황을 보고했다.

이어 연회에 들어간 동문들은 동국인들이 인천시 발전을 위해 요소요소에서 크게 활약하고있음을 自祝하면서 환담과 즐거운 여흥을 나누고, 김재동(42·혜전·인천고교장) 동문의선창으로 『나의 살던고향 을 합창하기도했다.

한편 영진동문등 朴培根(치안감·경찰종합학교장) 동문은 친족喪관계로 불참했다.

生物科장학금

3명에게 45만원

生物科동우회(회장=金盛灣)에서 2학기 장학금으로 同科후배 3명에게 총 45만원을 지급했다.

수혜자는 김경옥(4년) 최병휘(3년) 이명숙(2년)등이었으며, 전달식에는 모교 이해풍교수와 同會 李昞求부회장등이 배석했다.

교직원·학생세미나

본회타올기증격려

본회는 하계방학중에 열린 敎職員세미나및 재학생들의 각종 수련대회에 회장명의의 기념타올을 보내 격려했다.

年間 6백만원 支給

「東國70주년 奬學金」으로

「東國70주년기념장학금」 제2학기분으로 윤기봉(불교3)군등 30명에게 10만원씩 총3백만원이 지급되었다.

同장학금은 지난1학기에도 고시반, 체육특기자, 일반학생등30명에게 3백만원을 지급, 금년도 전체지급액은 6백만원에 이르고있다.

同장학금은 지난76년 모교 개교70주년을 기념하여 本會에서 汎東國人的 장학기금조성운동을 전개, 그결실을 본 것으로 지난80년 4천4백여만의 기금으로 同장학회를 정식 出범시켰다.

한편 同장학금은 지난해 1학기부터 지급해오고 있으며, 현재 기금은 5천6백여만원으로 「東國70주년기념장학회」 이사회에서 관리, 운영해오고 있다.

本會근로奬學生 선발

東友會報제작등에 活用

본회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는 「동창회근로장학금」 2학기분을 李元燮(국문3)군등 3명에게 수업료반액씩 각각 지급했다.

이번 본회장학생선발은 東友會報제작보조등 근로장학형태로 東大신문사등의 추천을받아 최종확정지었다.

◇장학금수혜자명단=▲李元燮(국문3) ▲姜惠媛(화학3) ▲河相奎(윤리2)

千萬원 基金조성

經營科 장학제도 확립위해

경영학과동우회(회장=成百幸)에서는 재학생들을위한 항구적인 장학제도를마련하기위해 1천만원의 장학기금을 모금키로 하고 1차로 금년말까지 5백만원을 확보키로 했다.

지난 3월 일원회의를거쳐 확정된 이 사업계획은 지금까지 매학기 45만원씩을 동과 후배에게 지급해오고 있는 것을 확대, 제도화하려는 노력으로 각기 별로 모금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한편 成회장은 취지문을 통해 『경영과 출신의 자부심이 이 장학기금에집결되도록 이해와 협조를바란다』고 밝히고 있는데, 연락처는 成회장사무실인 (☎)2251~2 (☎)7794·7801번. 또는 모교 총무처장실(☎)8571번)로 하면된다.

5백여만원 署名

農學科 恩師위로연도 준비

農學科동우회(회장=柳周馨) 일원회의가 지난8月19日 오후7시 시내 퇴계로 대림정에서 열려 장학기금 조성등을결의, 즉석에서 4백50만원을 서명받았다.

일원전원이 참석한가운데 열린 이날 모임에서는 장학기금 목표액을 1천만원으로하고 1차년도인 금년에 5백만원을 만들기로결의, 柳회장과 全淳灼 金洪喆 朴贊大부회장이 各1백만원. 金興培이사가 50만원을 희사, 서명했다.

또한 이자리에서는 8月31日 정년퇴임한 모교은사 金熙泰교수 위로연을 동회주최로 오는 9月26日(土) 오후5시 모교 다향관(또는 중앙잔디밭)에서 갖기로 결의하는 한편, 주변에 산재한 많은 졸업생들의참석을 서로 독려키로했다.

救農 22차 定總

신임회장에 沈載益동문

◇沈 회 장

救農東友會(회장 權五甲) 제22차정기총회가 지난7월19일 오전 독섭 꽃포장에서 회원및 가족1백2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열려 신임회장에 沈載益(64농학·서일공업전문대監事) 동문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날 거제의 李長杓·尹錫姬동문부부와 韓判培(마산) 朴鍾九(이리) 崔鍾基(대구) 동문등 지방회원들까지 두루참석,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진행된 총회는 孫學中부회장의 사회로 경과보고및 사업·결산보고에이어 역대 농어촌연구부장을 당연직이사로 하는등의 회칙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高光允(65농학·삼공부 새마을연수원 부원장), 朴鍾九(69농경·원광대 전산학과장) 등 두동문에게 숭진축하패, 具本洪(72농학) 동문에게 공로패를 각각 전달하였으며, 총회를 마친뒤 회원·가족이 어울려 보신탕잔치를 열며 재학시절 농촌봉사활동으로 다진 형제애를 더욱 돈독히 했다.

▲상임이사=李鍾敏 金경제 尹天泳 權五甲 宋永仁 孫學中 ▲회장=沈載益 ▲부회장=金眞植(67농학·원풍금속대표), 朱文秀(76건공·선경) ▲총무=劉鍾熙(65농경·대한교육보험관광지부장) ▲섭외=李현규(78일학·東大조교)

「東山會」정식발족

經大院 회장에 李殷榮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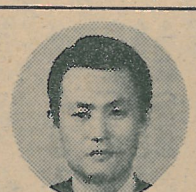
경영대학원동창회(회장=金完基)의 골프 클럽인 東山會가 정식 발족되었다. 골프동호인 16명을 회원으로 한 東山會는회장에 이은영, 간사에 서태종 동문이 있으며 月1회 친선시합을 통해 회원상호간의 유대강화를 도모한다는 회칙도 채택했다.

한편 동회발족기념 첫대회가 지난7월22일 수원컨트리클럽에서 열려 1등에 최수호(7기), 2등에 홍정렬(11기), 3등에 김귀열(9기) 동문이 각각차지했는데 트로피및부상은 이은영회장과 김귀열동문이협찬했다.

◇회원명단=이은영 김완기 서태종 하대규 정경철 김귀열 안병호 최수호 김정웅 조동룡 심상일 이은조 구제남 곽문용 김을권

司試合格 축하회

법조인회서 考試班지원 다짐


◇朴동문

모교재단인 학교법인 東國學院신임감사에 朴忠煥(59경제) 동문이 취임했다.

본회파견케이스인 신임朴감사는 전임감사 金遺腹동문의 임기만료로 지난7월13일의 재단이사회에서 선출된뒤 문교부승인을 받았다.

朴동문은 61년 제6회공인회계사시험에합격,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한선합동회계사사무소대표, 공인회계사시험위원등으로 활약해왔다.

제23회 司法考試합격자축하회가 법조인회(회장=金東正) 주최로 지난 7월20일 오후5시 모교 다향관에서 열려 축하파티로 6명의 합격자들을 위로 격려하는 한편, 모교考試班활성화를위한간담회도가졌다.

모교 閔丙天법정대학장, 張庚鶴교수, 金繁雄 고시반지도교수, 법조인회 金正雄(변호사) 金益相(변호사) 申相斗(부장검사)등 여명의 동문들과 고시반재학생 참석한가운데 진행된 이날 축하회에서는 金東正회장은 『합격자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지금 법조계에 동문수가 너무 적다. 앞으로 더욱 많은 합격자가 나왔으면 바람하는 것은 전동국인의 바람이다. 고시준비에만 전념할 있도록 선배들도 전념, 고시합격자원을 제1목표로 하고있다』고 강조했다.

67同期會

회장에 宋永仁동문

67년졸업동기회가 지난7월7일 오후 모교 다향관에서 열려 초대임원을 선출하는등 정식발족을 보았다.

▲회장=宋永仁(통계·국제문제연구소·재학당시 총학생회장) ▲부회장=權錫忠(정외·서울중합터미널전무이사), 李璜雨(경행·모교교수), 金勝有(정외·삼진상사 대표) ▲총무이사=李根永(통계·이우사대표)

農學科동문에게

본 農學科동창회에서는 모교에서 25년여를 후진양성에 진력해 오시다가 8월31일자로 停年退任하시는 은사 金熙泰교수님의 學德을 기리기위해 아래와 같이 「金熙泰교수 정년퇴임기념위로연」을 개최하오니 주위동문들에게 서로알리어 많은 參席바랍니다.

아 래

日 時 : 1981年9月26日(日) 오전11시
場 所 : 모교茶香館 (中央잔디 앞)
會 費 : 1만원以上

1981年9月 日

農學科同窓會
회장 柳周馨

金湖廷묘비제막식

演映科동우회에서

故 金湖廷(64연영·前MBC탈렌트) 동문 추모비제막식이 지난8月2日(日) 오전 경기도 파주군 소재 에덴동산 공원묘지에서 거행되었다.

演映科동우회(회장=하강일) 회원들이 성금을 모아 건립한 묘비는 브라운관에서 활약했던 故人의 업적을 기리고 있는데, 故金동문은 MBC·TV의 인기프로인 수사반장의 형사역을 8년간이나 맡는등 시청자들의 사랑을받았었다.

선수식당 고기供給

東女會 임원들

東女會 金貞愛(59불교)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지난7월10일 정오 모교 선수합숙소를 방문하여 직접 구입한 소고기(10만원분)를 선수들에게 전달, 격려했다.

선수숙소에 건조기

馬順伊동문이 기증

東女會부회장 馬順伊(59정치·대영실업社長) 동문이 지난7월10일 모교체육부를 방문, 세탁물건조기1대(30만원상당) 를기증했다.

年會費 납부자 名單

■愛敬油脂=
3만6천원(9명)
▲元東植(62경제) = 5천원
▲張壽星(56정치) = 3천원
▲李節寧(62경제) = 〃
▲金世永(58법학) = 5천원
▲김영진(72대원) = 〃
▲高錫晃(60경제) = 〃
▲고영태(75경원) = 〃
▲趙重鎭(58정치) = 〃
▲安鎔洪(58정치) = 〃
▲金允淑(79무역) = 3천원
▲崔熙鍊(48전문) = 4천원
▲孫亮賛(52경제) = 5천원
▲金在淵(70행원) = 2만원
▲朴鍾在(59경제) = 5천원
▲金鍾壽(61법학) = 〃
▲鄭時澤(63정치) = 〃
▲金鐵龍(72행원) = 〃
▲朴榮周(74경제) = 〃
▲崔忠根(64법학) = 〃
▲鄭鎬云(70행정) = 〃
▲조재성(66연영) = 〃
▲劉彰日(64경제) = 〃
▲金聖圭(60경제) = 〃
▲金德鉉(75농학) = 〃
▲趙南德(63정치) = 〃

理事會費 납부자 名單

◇常務理事
▲安채蘭(54·국문) = 5만원 (一部)

◇理 事
▲鄭大鎭(63·법학) = 5만원
▲朴培根(67·법학) = 〃

永久會費 납부자名單

▲南秉國(64·법학) = 100$

相扶相助하며 紐帶강화

美 中西部지부의 活動相

美中西部(시카고) 지부 회장 吳泰銀(57영문) 동문과 前총무 南秉國(64법학) 동문이 지난7월30일 本會 사무국에 들러 同지부 현황을 전해주었다. 시카고시립대에서 한국인으로 영어교수인 吳회장은 在美·국내교수 합동하계 세미나에 참석하기위해 귀국했고, 운수업을 하고있는 南동문은 가족들을 만나기위해 일시 나왔다. 다음은 吳·南동문이 전하는 中西部지부 현황.

在美 中西部지부가 창립을보게 된것은 지난75년4月의 일로 불과 6년전의일. 처음엔 19명이던 회원이 지금 윤 50여명으로 늘었으며, 회원들은 모두 친선를 목적으로 모임은 끝 친선를 목적으로 모임이 되고있다는것.

同지부의 활동으로는 회원경조사가 있을때 會員가정을 방문하며 相扶相助하며 東友愛를 일깨우고 있는 것도 자랑이다.

그리고 모교 은사나 동문들이 이민, 또는 여행을 왔을때 그 안내역할도 지부에서 솔선하고있다.

지난70년 未堂 徐廷柱선생이 시카고를 방문했을때 南泰熙 南秉國동문등 회원들이 선배를 정성껏 모신것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同지부는 여느 다른 대학동문회보다 앞장서서 「회지」를 발간해내기도 했으며, 지부의 영구발전기금과 모교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모금도 계획하는등 東國의 뿌리를 내리려는 노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편 동회는 초대회장 南泰熙 2대회장 金正夫, 3대회장 李志鎔, 4대회장 李長洙, 5대 현회장이 吳泰銀동문이 맡아오고있다.

회원50명 모두가 알차게 定着해

同門契조직, 매월 골프대회 열어

◇南泰熙동문

◇李長洙동문

◇吳泰銀동문

◇南秉國동문

특히 회원들이 나름대로 알차게 정착해있는것이 자랑인 中西部지부는 매년 여름과 年末에 2回의 정기 모임으로 선후배간의 우의를 돈독히 해오고 있다.

또한 회원들끼리 同門契를 조직, 每月 모임을 갖고있는데 계원들은 모두가 支部內의 중견핵심 인물들로 지부의 발전을 주도해 오고 있다.

특히 契모임은 一種의 골프를 겸 성격을 띠고있는데, 每月 계에의 향수와 모교애에 눈물겨운 이제는 東友會를 활발히 이끌어 오고 있는 것이다.

學·藝術院 회원에 5명

李範宣·兪賢穆동문 새會員으로

◇李範宣동문

◇兪賢穆동문

李範宣(49전문·小說家), 兪賢穆(49전문·영화감독) 두동문이 지난 8월13일 발표된 예술원正會員으로 신규 任命되었다.

同院은 학계의 원로들로 구성, 꾸준한 연구, 토론으로 보다나은 예술세계 구현에 목적을 두고있는데, 이미 趙演鉉 徐廷柱동문이 正會員으로활약하고있어 총원46명중 동문이 4명이나 되고있다.

한편 學術院 正會員으로는 車柱環(44예전·서울大교수) 동문이 활약하고 있으며, 모교在職 學·예술원회원은 裵吉基·李海浪·李眞淳 교수가있다.

또 전직 모교 교수출신으로는 李熙昇 高柄翊 李漢基 徐燉珏 崔虎鎭 申泰煥 鄭文基 朴勝萬씨가 회원이 되었다.

洪孟植동문 아들兄弟 기염

司法·外務考試에 나란히 合格

洪孟植(53경제·삼척군 교육청교육장) 동문의 아들현제가 나란히 사법·외무고시에 합격하는 경사를 안았다.

東海시北坪동에 살고있는 洪동문의 자제 志徹(27) 志仁(25)씨 형제가 지난6월의 제23회司法및 外務考試에 나란히 합격함으로써 洪동문은자신이 이고시에 몇번실패했던 한을 아들代에서풀게되었다고 기쁨을 감추는 기도.

지난 8월26일 동대학 이사회에서 학장으로 선임되어 문교부승인을 거친 黃동문은 瑞逸공업전문대 개교와 동시 조교수로 취임, 同교무과장등을 역임한 개교 멤버이기도.

서라벌예고에서 동대학으로 옮긴 黃동문은 68년 한국일보 新春文藝 詩당선으로 문단에 데뷔, 금년봄 「꽃이피는지역」이라는 첫시집을 내놓았다.

저서로는 靑丘永言연구, 海東韻記등이 있다.

瑞逸공업專門大學長에 취임

黃淳九동문

黃淳九(62·국문)동문이 瑞逸공업專門大學 학장으로 취임했다.

東亞建設부사장으로 전임

安澈奐동문

安澈奐(52경제)동문이 東亞그룹인(주)東亞洋行 사장에서 주력기업인 東亞建設(주)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해병大領예편과 함께 대한통운 部長級으로 東亞그룹에 발탁된 安동문은 通運상무, 대한통운여행사 전무·부사장·사장등을 거쳤다.

이어 安동문은 大田MBC사장을 역임한바있으며, 샤프하면서도 의리가 강하고 部下직원에게 자상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韓美聯合司 부사령관취임

朴魯榮동문

朴魯榮(58경제·육군中將) 동문이 지난8월31일 韓美聯合司 부사령관으로부임했다.

30년 堤川출신인 朴동문은 49년 소위로 임관, 30여년간을 軍에 몸담아 國土防衛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서울대행정대학원을 이수하는등 文武겸비의맹장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6·25때 소대장으로 참전경력을 갖고있는 朴동문은 원주시장 (5·16당시), 서울大 학군단장, 주월한국군사령부참모장, 사단장, 군단장등의 주요 요직을두루 거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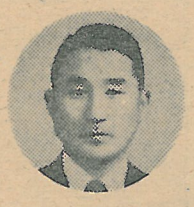
한편 朴동문은 美보병학교·주미대사관 국방부武官등을 지내 英語에도 능숙, 韓美연합사 부사령관의 적임자로 알려지고 있기도.

육군 제1師團長으로 榮轉

金乙權동문

金乙權(75經院) 장군이 지난 8月20일자로 육군제1사단장으로 부임했다.

金동문은 현역으로 있으면서 모교 경영대학원 1期1番으로 석사과정을 이수한 학구파로, 현재 경영대학원동창회 감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동양綜合商社부사장활약

李浩成동문

李浩成(52영문) 동문이東洋綜合商社(주) 부사장에 취임, 활약중이다.

同門動靜

略稱>

近況이나 주동지 諸소식은 언제든지 다.

榮進·轉輔

▲宋達鏞(58농학) ‖지난 8월1일자로 파주군 부군수에 의정부시 부시장으로 榮轉, 宋동문은 파주재임시 파주東友會부회장으로 支會발전에 앞장서오기도.

▲朴흥규(63농학) ‖경북 영일군 성하면 상대리에 소재한 두산농산(주) 청하농장장으로 활약중.

出入國

▲金遺腹(51정치·국회의원) ‖8月25~9月10日까지 태국등東南亞시찰.

▲黃明秀(53정치·국회의원) ‖국회國防委員들과 함께 미국국방시설을 돌아보기 위해 지난 8月29日 출국, 귀국은9월18일경.

移轉·開業

▲朴埈亨(63경제·신라交易사장) ‖시내 중구북창동 신라빌딩(舊국제빌딩)을 인수하여 지난6월27일 사무실이전.

▲趙乃璧(62경제·라이프주택그룹會長) ‖시내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新社屋을완공하여 지난8월9일 사무실을 이전. 同사옥은 연건평 1만1천평에 지상17층 지하2층의 에너지절약시스템을 도입한최신형 빌딩으로 지난해3月에 착공, 1년 4개월만에 완공됐다.

▲白樂道(56불교) ‖서대문구 역촌동에 몽블랑제과점을 개업.

▲都昌鎬(77철학·(주) 동지나課長) ‖동대문구장안평아파트내에 태양다방개업.

▲劉榮鍾(79무역·효성바사프) ‖강동구 잠실4동 미성A8동911호로이사

▲白龍文(67철학) ‖강남구도곡동 주공A307동1205호로이사.

敎授動靜

▲宋遺腹(51정치·국회의원) ‖8月25~9月10日까지 태국등東南亞시찰.

▲黃明秀(53정치·국회의원) ‖국회國防委員들과 함께 미국국방시설을 돌아보기 위해 지난 8月29日 출국, 귀국은9월18일경.

東亞건설 해외주재 常務로

蔡奎敏동문

蔡奎敏(63정외) 동문이 東亞건설홍콩사에서 同해외담당(사우디A支社근무) 상무이사로 轉任, 해외건설역군의 일선에나섰다.

동진산업 총무이사로 昇進

金旭동문

金旭(62경제) 동문이 동진산업(주) 경리부장에서 同총무이사로 지난5月來승진했다.

한양공영 총무부장에 轉任

許永會동문

許永會(60정치) 동문이 한양공영(주) 기획관리실장에서 同총무부장으로 榮轉했다.

효성건설 理事에 승진

李佑永동문

李佑永(62경제) 동문이 효성건설(주)영업부장에서 임원급인 이사로 승진했다.

서울공업專門大 사무국장에 轉任

沈載益동문

沈載益(64농학) 동문이 瑞逸공업전문대학 사무국장에 취임했다. 신동문은 농학과 조교등을 거친 金동문은 가업인 대광예식장등을 경영한바도 있다.

仁川製鐵(주)대표이사취임

鄭夢弼동문

鄭夢弼(62경) 동문이 仁川製鐵(주) 사장으로 취임했다.

鄭동문은 現代그룹 鄭周榮회장의 장남으로 현대건설 상무이사, 동서산업 사장, 현대종합무역상사 사장, 현대중공업 상무이사, (주) 금강 부사장등 현대그룹內의 주요업체를 두루거친 막강한 실력자가되고있다.

東亞건설 해외주재 常務로

蔡奎敏동문

蔡奎敏(63정외) 동문이 東亞건설홍콩사에서 同해외담당(사우디A支社근무) 상무이사로 轉任, 해외건설역군의 일선에나섰다.

동진산업 총무이사로 昇進

金旭동문

金旭(62경제) 동문이 동진산업(주) 경리부장에서 同총무이사로 지난5月來승진했다.

한양공영 총무부장에 轉任

許永會동문

許永會(60정치) 동문이 한양공영(주) 기획관리실장에서 同총무부장으로 榮轉했다.

효성건설 理事에 승진

李佑永동문

李佑永(62경제) 동문이 효성건설(주)영업부장에서 임원급인 이사로 승진했다.

서울공업專門大 사무국장에 轉任

沈載益동문

沈載益(64농학) 동문이 瑞逸공업전문대학 사무국장에 취임했다. 신동문은 농학과 조교등을 거친 金동문은 가업인 대광예식장등을 경영한바도 있다.

東亞건설 해외주재 常務로

蔡奎敏동문

蔡奎敏(63정외) 동문이 東亞건설홍콩사에서 同해외담당(사우디A支社근무) 상무이사로 轉任, 해외건설역군의 일선에나섰다.

동진산업 총무이사로 昇進

金旭동문

金旭(62경제) 동문이 동진산업(주) 경리부장에서 同총무이사로 지난5月來승진했다.

한양공영 총무부장에 轉任

許永會동문

許永會(60정치) 동문이 한양공영(주) 기획관리실장에서 同총무부장으로 榮轉했다.

효성건설 理事에 승진

李佑永동문

李佑永(62경제) 동문이 효성건설(주)영업부장에서 임원급인 이사로 승진했다.

서울공업專門大 사무국장에 轉任

沈載益동문

沈載益(64농학) 동문이 瑞逸공업전문대학 사무국장에 취임했다. 신동문은 농학과 조교등을 거친 金동문은 가업인 대광예식장등을 경영한바도 있다.

特殊奬學지원위해 會費를 보냅시다

한방울의 물이 모여 큰 강물이 됩니다。會費는 內實을 다지는 會發展의 밑거름입니다。특수 奬學사업지원을 위해 금년부터 각종 會費가 引上되었읍니다。더많은 일을 할수있도록 너도 나도 정성어린 會費를 보냅시다。

□年 會 費 : 年5천원(영구회비 5만원以上)

□常務理事·監事會費 : 年20만원 □理事會費 : 年5만원

납부처 동창회사무국 ☎267-8568(직)267-8131(교)465

우편대체구좌번호 525669

同門動靜

<無順·敬稱略>

本人의 近況이나 주위同門들의 諸소식등이있으시면 언제든지 提報바랍니다.

李浩成동문

李浩成(52영문) 동문이東洋綜合商社(주) 부사장에 취임, 활약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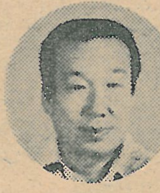
淑明여대 문과대학장 被任 鄭世鉉동문

鄭世鉉(57사학) 동문이 淑明女大문과대학장으로 임명되었다.

仁川女高교장으로 轉任 金濟東동문

金濟東(42 혜전) 동문이 지난7월 인천시 교육청 敎育長에서 인천여고 교장으로 전임되었다.

「靈岩觀音詩畫展」好評 받아 趙靈岩동문



趙靈岩(44혜전·詩人) 동문이 첫개인 詩畫展인 「靈岩觀音詩畫展」을 지난7月1~7日까지 시내 관훈동 洪寶堂화랑에서 열었다.

趙동문의 詩集인 「관세음보살」에 실었던 「보타낙가산」 「해수관음」 「관세음보살 대외왕」 등 50편이 전시된 이번 작품전의 작품은 그의 독특한 초서와 普道輪씨의 禪畵가 조화를 이루어 찬사를 받았다.

한편 오는9월20일경 인천을 비롯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詩畫展을 가질 계획으로 있는 趙동문은 시인이며, 관상학자로도 명성을 떨치고 있다.

自動車정비공장 移轉확장 申鉉泰 동문

申鉉泰(57경제) 동문이 자동차서비스 업체인 三一機工社를 시내 聖水洞2가(성수역앞)으로 이전, 확장했다.

자동차 重機 發電機 크랑크로-라연마 등의 내연기관 재생(엔진보링) 전문공장인 同社는 건평 1천1백평에 종업원수가 1백여명에 이르고있다.

첫 女性 근로감독관으로 申洛동문

申명(76행원·노동부 서울중부지방사무소근로감독4과장) 동문이 우리나라 노동행정사상 첫 여성근로감독관이 되어 화제가 되고있다.

東大사대부고 校長 부임 李光載동문

李光載(45혜전) 동문이 동국학원산하 明星女中교장에서 동대사대부고 교장으로 榮轉되었다.

長興안산중校長으로 榮轉 具熙斗 동문

具熙斗(51 英文) 동문이 장흥 용산중 교감에서 장흥 안산중 校長으로 승진, 부임했다.

「敎員書藝展」성황리 마쳐 韓養根 동문

村步 韓養根(53 법학·大林女中교장) 동문이 이끄는 대한서예교육회의 제1회 敎員書藝展이 지난 8월16~20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려 同好人들의 호평을 받았다.

창립 20여년을 바라보는 敎育者의 서예단체인 大韓書藝교육회 회장을 맡고있는 韓동문은 『이제 교육자들은 全人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예능적·정서적인 교육과 아울러 사회의 실용성있는 書寫능력을 배양하는데 힘쓸때다』면서 『이번 작품전은 그러한 교육자의 책임의지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춘운동의 선구자로서 많은 지역사회 운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同大學 개교이래 재단이사, 기획실장으로 일해왔다.

<金融界인사이동>

◇國民銀行

▲金鎭億(57법학)=돈암동지점장에서 龍頭洞지점장으로 전임. 57년 産銀에 입행했다가 62년 국민은행으로 혜화동지점등, 국제부장등을 역임했다.

▲鄭國立(61정치)=양평동출장소개설준비위원장으로 지점개설에 동분서주, 마침내 개점을 보게된 양평동출장소장으로 정식취임했다. 鄭동문은 청량리지점차장, 중권대행부차장을 거쳐, 일선점포장 승진을 안았다.

◇서울信託銀行

▲咸泳旭(58정치)=마포지점장에서 新設洞지점장으로 轉任. 咸동문은 東大邱·강릉지점장등을 차례로 역임해왔다.

▲金春顯(58 경제)=原州지점장에서 망우동지점장으로 영전. 지난79년 영업부차장에서 화곡동지점장으로 발탁되어 일선점포책임자가된 金동문은 현재 서울신탁동우회장을 맡고있다.

◇朝興銀行

▲金宇燮(58경제)=조흥은행서대문지점차장에서 지점장으로 승진, 麗水지점에부임했다.

◇한국商業銀行

▲許文秀(57경제)=청계지점장에서 대우빌딩內의 서울驛前지점장으로 전임. 許동문은 서교동·신길동·光州지점등을 두루거쳤으며 현재 商銀동우회장을 맡고있기도.

회장으로 [illegible]

▲차홍규(63농학)=경북 영일군 섬하면 상대리에 소재한 두산농산(주) 청하농장장으로 활약중.

▲安文玉(55영문)=仁川시敎委 중등교육과장으로.

▲韓榮錫(61정치)=문교부대학교육국대학제도과장으로 전임.

▲金圭泰(63정치)=전매청전주지청장에서 本廳수납과장으로.

▲金漢敎(75경영)=행진개발(주) 관리부장으로.

▲金상釣(61경제)=대한통운 民需영업부과장에서 광주지점작업차장으로.

▲李信白(75농학)=농협하동군조합에서 중앙회저축부대리로.

▲李輔炳(64상학)=대한석탄공사훈련소(강원 영월소재) 교수로.

▲安英根(76공경)=백화양조 부산지점으로.

▲朴斗暎(55국문)=경제문화사 사업부장으로.

▲申돌永(73법학)=라미화장품(주) 광주지점장에서 本社영업부特販1과장으로.

▲金忠國(63경제)=民正黨인천中·南區黨 사무국장으로.

▲趙炳協(63사학)=民正黨 인천中·南區黨조직부장으로.

▲李鍾秀(71영문)=東西文化社 영업부장으로.

▲金洪中(80식공)=(주)豊築(NIKE) 특수영업본부 영업과로.

▲鄭聖采(67법학)=東亞제약(주)大田支店長으로.

▲元鍾善(81행정)=한국건업(주)업무부로.

▲許韓旭(74경제)=第一銀行 무교지점

▲黃明秀(53정치·국회의원)=국회國防委員들과 함께 미국국방시설을 돌아보기위해 지난 8月29日 출국, 귀국은9월18일경.

▲金東正(57 법학·변호사·본회 부회장)=지난7월31일부터 8월26일까지 약 1개월간 南美각국을 순방하고 귀국.

▲柳周馨(57농학·대성모방(주) 회장·본회부회장)=지난8월22일 동남아시장개척을위해 약10일간예정으로 출국.

▲李英駿(59 법학·국회의원·본회 부회장)=국회재무위 해외시찰단으로 8월6~30일까지 약3주간 선진각국의재무제도시찰.

▲金榮龜(62경제·국회의원)=의원친선사절단 제2반에 소속되어 이집트 이탈리아 스페인등을 공식방문하기위해 지난 8월25일 출국.

▲李元範(65행정·국회의원)=국회·상공위원들과 함께 25일간 美 카나다 멕시코 브라질등 美洲諸國에대한 수출실태와 이들 국가의 산업시설들을 살펴보고 8월19일 귀국.

▲朴德圭(60법학·국회의원)=지난7월22일 국회외무위 해외시찰단으로 출국, 자메이카 베네수엘라 스페인 모로코등 8개국을 순방하고 의회제도시찰및 친선교류에 이바지하고 귀국.

▲趙炳鳳(67대원·국회의원)=美國·콜롬비아등을 방문하는 정래혁 국회의장을 수행하고 지난7월12일 출국했다가 약 1개월만인 8월7일 귀국.

▲朴完一(61불교·대한불교조계종전국신도회장)=오는9월4일 日本의 金日本佛敎會와의 韓日불교친선교류를 위해 1주일간 예정으로 출국계획.

▲閔容植(49전문·일우해운(주) 사장)=지난8월28일 일본해운시장등을 둘러보기위해 1주일예정으로 출국.

▲崔載五(61법학·(주)동성판매부장)=지난8월4~25일까지 업무관계로 渡美, 뉴욕·시카고·LA·샌프란시스코 등을거쳐 귀국.

▲白永哲(65법학·明知大교수)=明知大하계연수학생들을 인솔하고 渡美, 1개월간 체류하고 귀국.

▲金寬性(48전문·明星女高교장)=美LA 관음寺초청으로 LA「한국의 날」행사에 출연한 명성여고 불교합창단을 인솔하고 지난8월10~26일까지 약15일간渡美했다가 귀국.

▲李起彬(79경원·한국지퍼공업(주) 사장)=오는 9월초 업무차渡日예정.

▲趙承哲(59농학·농업진흥공사농업개발과장)=지난 8월중순 업무관계로 渡日.

▲全珍杓(64임학·내무부 林業연수원)=지난해7월1일 獨·스위스·英國등 선진각국의 입업실태와 기계화현황시찰및 연수차 출국했다가 1년여만인 지난8월17일 귀국.

▲李鍾善(69경영·서울여객자동차공사사장)=8월20~9월3일까지 동남아산업시찰.

▲韓興宇(81경영)=캘리포니아洲立大유학을 위해 지난 8월28일 도미.

▲윤원준(57영문중퇴·뉴욕주씨에나대학교 사학과교수)=여름방학을 이용, 모국에 일시 들렀다가 李昌培 宋赫 姜敏동문등을 만나 모교와 씨에나대학간의 자매결연 주선용의가 있음을 표명하고 도

敎授動靜

▲吳國根(文理大·英文科) 학생처장=지난7월26일~8월24일까지 런던에서 열린 제23차 청소년과학회의 참가학생을 인솔하고 다녀옴.

▲睦楨培(佛敎大·佛敎學) 교수=지난8월10일부터 29일까지 일본에서 열린제36회 불교학·인도학 학술회의에 참석.

▲崔德熙(문리대·수학과) 교수=79년8월11일부터 지난8월1일까지 미국 U·C·L·A대학에서 국비해외연구를 하고 귀국.

▲白奉欽(62법학·법정대) 교수=지난7월29일부터 8월7일까지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世界法哲學者大會」에 참석한 후 美國의 大學을 시찰하고 22일귀국.

▲金鍾玉(64철학·모교생활지도과장)=지난8월5~18일까지 2주일간 종합대학생처과장회의 학생지도해외연수단으로 比·대만·홍콩등 東南亞를 시찰.

▲許正植(66경영·모교電算院專講)=美뉴저지洲立 大學으로 유학차 지난 6월18일 出國. 한편 許동문은 현지에 도착하여 여정을 풀고 본회사무국으로 열심히 학문연구에 정진하고 있다고 안부소식을 전해오기도.

結婚

▲洪鳳來(58법학·본회 副會長·동양금속공업 사장)=8月28日 정오 천도교예식장에서 長男 결혼.

▲朴永煥(49전문·용산전신전화국장)=8月26日 오후2시 천도교예식장에서 長男 元椿군 결혼.

▲李雲學(53정치·수도공고校監)=7月17日 시내 동자동 동성교회에서 次女결혼.

訃音

▲吳亨淳(72행원·협창사대표)=7월14일 父親喪

▲朴瑾浩(70행정·모교행정대학원학감)=7월19일 母親喪

▲邊大植(72상학·강원은행대리)=7월23일 새벽 춘천시 운교동 자택에서 강도피습으로 본인 별세

▲노영용(61경제)=6월6일 白血病으로 본인 별세

▲박중현(62정치·美뉴욕맨하턴오페라하우스관장)=8월5일 祖父상

▲趙光錫(61경제·고려공예사대표)=8월11일 모친상.

▲金雲學(73대원·모교교수)=8月15日 持病으로 本人別世

其他近況

▲鄭在哲(52정치·국회의원) 趙炳鳳(67대원·국회의원)=韓日議員聯盟산하 경제위원회의 위원장에 鄭在哲회장이, 同부위원장에 趙炳鳳동문이 각각 被任.

▲柳根昌(50전문·한국토지개발공사 社長), 金成斗(56大院·조선일보논설위원)=國土계획과 국토조사에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國土건설심의회의 민간위원(총19명)으로 위촉됨.

초대석

첫兄弟학생회장 탄생

형金洪萬(70년)·동생金洪千(81년)

○…東國개교 75년史에 형제 총학생회장이 탄생했다.

한 핏줄을 나눈 형제가 같은 모교인 경우는 흔히 볼 수 있지만, 모교를 같이하여 같은 총학생회장의 길을 걷는 일은 보기드문 例ㅡ. 화제의 주인공은 지난 70년에 총학생회장을 지낸 金洪萬(71행정) 동문과 이번 81년도 총학생회장을 맡게된 金洪千(경행3) 군 형제.

○…이들을 대학에서 볼 때는 兄弟이전에 선후배사이로 兄은 70年代초 轉換期의 새 章을 열었고, 동생은 이제 80년대초 새歷史창조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된 점에서는 서로 相通하는 바가 있다.

다만 학생회장의 자리에 오르는데 있어서 兄은 직접선거, 동생은 대의원 간선제로 당선되었다는 차이일뿐, 실제에 있어서 학생회장이 되는 길은 어느쪽이나 쉽지 않다.

洪千군은 스스로 학생회장 출마결심을 하고나서 형과 상의를 거쳤다고 한다. 이때 형은 자신의 재학시절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학생회장은 소신과 능력, 정의감, 自信感이 있으면 나서라』고 격려했다는 것.

말하자면 동생 洪千군이 당선되기까지에는 이미 회장을 지낸 경험이 있는 형의 따뜻한 충고와 격려, 치밀한 선거전략등이 한몫을 한 셈이 되었다.

막상 동생의당선이 확정되자 형은 『주위의 여파에 흔들리지 말고 확고한 信念하에 소신껏운영해 나가라』고 선배로서의 충고겸 축하를 했다는것.

◇모교에 兄弟총학생장의 기록을 세운 金洪萬(左), 金洪千형제.

5兄弟中 4명이 東國가족

그래서인지 앞으로 『형님이 다하지 못했던것ㅡ 學生을 주인으로하는 풍토와 학생의 권익을 위해서 전력투구 하겠다』는 것이 동생의 一聲.

○…한편 이들 형제가 나란히 東岳을 이끄는 총학생회장인것도 화제지만 이들 형제5남1녀중 4형제가 모두 동국인데다가 또 洪千군의 둘째형수가 동국인이어서 이들 가족은 東國人 一色을 이루고 있다.

이들 동국가족들을 보면 맏이인 金洪萬(現신정당 대전중구지구당위원장) 동문을 필두로해서 둘째 金洪德(74體敎·청담중교사) 池貞順(78·史學·청담중교사) 동문부부·그리고 세째는 金洪千(경행3) 군이며, 네째는 金洪錫(80경행·육군소위) 동문이다.

다만 洪千·洪錫형제의 경우, 洪千군이 먼저입학하여 다녔는데도 군에입대하는 바람에 동생이졸업선배가 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가끔 가족회의가 열릴때면 회의는 가족회의아닌 모교동문회로 둔갑하기도 한다는데 가족도가족이지만 동문이어서 더격의없고 친근한지도 모르겠다고 한다. 앞으로2세들도 동국에 입학, 꼭 총학생회장의 전통을 키워나가고 싶다고ㅡ

형이 아우의 가까운 相談役

둘다「主人의식」회복에 力點

李廷大동문「바」峰등반중 墜落死

友情꽃피운 값진 犧牲

인수봉에 故人묘비세워

히말라야산맥의 바인타브락Ⅱ봉(6천9백60m) 등정에 나섰던 한국岳友會 카라코람원정대소속의 李廷大(77수학) 동문이 지난7月15日 정상50m를 남기고 정복에 실패, 下山하다 추락하여 숨졌다.

李동문은 동료대원 1명과함께 1차정상공격조로 선발돼 7월15일 하오1시30분(현지시간)부터 9시간의 공격끝에 해발6천9백10m의 정상능선에 도달했으나 마지막 50m의 직벽에서 난관에부딪혀 4시간동안 등정을 시도했으나 실패, 탈진한 상태에서 하산하다 해발 6천3백m의 제3캠프지점까지 떨어진 것이다.

李동문이 추락한것은 자신이 기진맥진하여 몸을 가눌수 없게되자 동료대원의 희생을 막기위해 스스로 자일을 풀은것으로 山사나이의 값진 殺身成仁정신을 보여주었다.

李동문은 53년 경남金海출신으로 모교를 졸업한후 경기 富川에 있는 소명여고에서교편을잡다가 이번 동반참가를위해 지난4월에 퇴직했었다.

한편 李동문의 영결식은 지난8월9일 오전 서울 조계사에서 거행되었으며 유해는 李동문이 생전에 즐겨올랐던 인수봉 중턱에 안장했고 岳友들이 묘비를세워 고인의 명복을 기렸다.

전국 高校재직동문 名單

본회에서는 「전국 동문찾기」 1차작업으로 지난 8월10일 전국中高에 재직동문과악협조공문을 보내어 1천여명의 교직동문을 새로발굴해 내는등 좋은성과를올렸다。 공문은 모교 공보부의 협조를얻어 1천2백여개교에 발송, 8월31일까지 4백여교에서 회신을 보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회신이 도착되면 더 많은 교직동문이파악될 전망이다。 한편 본회는 새로 파악된 회원자료를 바탕으로 東友會報발송, 회원명부정리와 함께 모교 홍보활동등을 원활히할 계획이다。 우선 8월31까지 本會에 접수된 명단을 서울·지구부터 차례로 소개한다。 〈편집자註〉

현주소

〈서울〉

◇경기고교
▲金亨杰(50國文)=교사
▲張寶光(64國文)=교사
◇경기상고
▲高鎔燮(57法學)=교사
▲河英鎬(58經濟)=교사
▲閔殷基(63文理)=교사
▲崔俙鐸(68商學)=〃
▲黃鎬重(80敎院)=〃
◇경동고교
▲安楠喆(49文學)=교사
▲申癸湜(57國文)=〃
▲兪東濬(58 〃)=〃
▲崔世衡(61 〃)=〃
◇고려고교
▲金在胡(63국문)=교사
▲高英俊(69 〃)=〃
▲宋英起(76공경)=〃
▲鄭平浩(65수료)=〃
▲蘇基燮(68수료)=〃
◇관악고교
▲李揆天(60수학)=〃
◇광성중고
▲李淵昌(60생물)=中교사
▲金允鎭(57法學)=高교사
▲全蔡敏(68국문)=〃
▲鄭文秀(68일학)=〃
◇낙강고교
▲金連錫(71수학)=교사
▲吳康憲(72사학)=〃
▲金龍基(77상학)=〃
◇동도중학
▲具滋昇(60수학)=교사
▲吳正祿(76수교)=〃
▲閔敬植(79수교)=〃
◇마포중고
▲朴基一(59국문)=중교사
◇영등포고교
▲黃復性(81經院)=고교사
◇영등포중고
▲崔光義(63법학)=교사
▲崔秀吉(67국문)=서무과장
▲柳斗熙(72영문)=교사
▲金興式(건축)=교사
◇보성여고
▲朴愛姬(69數學)=교사
▲金在文(70法學)=〃
▲柳福聖(80國敎)=〃
◇상일여고
▲李雲源(74國文)=교사
▲朴貞洙(80國史)=〃
◇성덕여상
▲金光烈(64物理)=교감
▲鄭龍煥(68經濟)=교사
▲金成大(69經營)=〃
▲孫鍾澤(76科敎)=교사
▲申榮植(76農生)=〃
▲張龍濟(76農生)=〃
▲朴京官(78 〃)=〃
▲姜顯殊(79家政)=〃
◇성정여고
▲朴圭鉉(80數學)=〃
◇영파여고
▲申相星(70국문)=교사
▲李在完(78국문)=교사
◇예일여고
▲金善英(70영문)=교사
▲盧明姬(79 〃)=〃
▲李東柱(81국사)=〃
◇정신여고
▲丁海春(67국문)=교사
◇진명여고
▲李祐鍾(49불교)=〃
▲嚴泰燮(61사학)=〃
◇진선여고
▲朴泰遠(69국문)=교사
▲楊澤圭(70 〃)=〃
▲金英東(71 〃)=〃
▲安載根(73科敎)=〃
▲李大聖(73佛敎)=〃
▲林東一(76 〃)=〃
▲朴春姬(77國文)=〃
▲李點元(79美術)=〃
▲田重培(81史學)=〃
▲張益(81佛敎)=교사
◇창덕여고
▲許正均(49文學)=교사
▲朴璡燮(58國文)=〃
◇중문여고
▲李重植(62史學)=〃
▲裵炳培(71사학)=〃
◇배재중학
▲李輔官(62사학)=교사
▲文孝治(66국문)=〃
◇서라벌중고
▲李德宰(73수학)=중교사
▲鄭上天(80수학)=〃
▲朴宗甲(60生物)=고교사
▲李圭南(62國文)=〃
▲林洛鉉(63 〃)=〃
▲金富雄(67 〃)=〃
▲李應龍(77체육)=〃
▲鄭信在(79국교)=〃
◇서울예고
▲李漢植(63수학)=교사
◇신진공고
▲李惟相(61국문)=교사
▲洪택鎬(77수교)=〃
▲李慶寬(64국문)=교사
◇오산고교
▲李富弘(62英文)=교사
◇인창중고
▲金斗植(50史學)=中교장
▲崔允植(49文學)=中교감
▲全鑾植(50佛敎)=中교사
▲任在彬(63經濟)=중교사
▲郭再熙(66경영)=〃
▲李世福(78사교)=〃
▲朴榮起(58경제)=고교사
▲潘俊雄(60법학)=〃
▲裵呈鎬(62경제)=〃
◇재현고교
▲林炅達(57법학)=교사
◇중동고교
▲吳世應(61사학)=교사
▲楊潤宅(67국문)=〃
▲金宗九(73국문)=〃
▲咸成柱(80국문)=〃
◇성남중고
▲趙南俊(65법학)=중교사
▲宋鍾萬(52국문)=고교사
▲柳在熙(75 〃)=〃
◇영등포고
▲朴永哲(81史學)=〃
◇관악여상
▲黃奎甫(78美術)=교사
▲宋聖喜(78政治)=〃
▲羅惠善(80數學)=〃
◇보성여고
▲朴愛姬(69數學)=교사
▲金在文(70法學)=〃
▲金章東(72국문)=교사
▲徐正祿(72수학)=〃
◇중대부중고
▲權赫成(49文學)=교사
▲具滋欽(52史學)=〃
▲元瑛漢(49文學)=〃
◇한성고교
▲金基彰(80行政)=교사
▲朴永哲(81史學)=〃
◇관악여상
▲黃奎甫(78美術)=교사
▲宋聖喜(78政治)=〃
▲羅惠善(80數學)=〃
◇보성여고
▲朴愛姬(69數學)=교사
▲金在文(70法學)=〃

그대 故鄕은 역시 山이었구려

——山사나이 故 李廷大동문의 명복을 빌면서

아우여, 히말라야 바인타브락 봉우리 밑에서 편안히 누워있을 아우여! 지금 山을 오르는 세계의 모든 山사나이들이 아우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네。 정상을 눈앞에 두고 우리품으로 돌아오던 아우를 히말라야는 기어이 누어주면서도 山에 대한 결허한 자세로 등정을했던 아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네。 어떤 티도없었던 진정한 山사나이 그대를 山은 일찍 데려가 버렸네。 자네가 살린 동료 柳대원이 올고있네。 자네가 보여준 山사나이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東國이 울고있네。 자네가보여준 기개에 전 세계산악인이 고개를 숙였네。

아우여, 히말라야의 눈보라갈은 투지와 억센 힘으로 지친 동료를 떠받우의 죽음은 충격보다는감동을 심어주었네。 필경 우리같은 凡人이 일생동안 나누어 주어도다 주지 못하고 남겨가지고갈 사랑을 단 한번에 모두 주고 떠난 아우기에 그 대는 눈 속에 묻혀있지만 그 정신은 이렇게우리 山岳人의 뜨거운 핏줄속에 살아 꿈틀거리지 않는가。

우리 東國산악회는 술한 산악인의 넋이 스며있는 마나슬루를 기어이 등정하여 우리 기개를만방에 떨쳤지만 아우도이번 등정때 누구도 하지 못할 장한 일을 해냈네。 또 東大精神을 그 매섭고 외로운 히말라야 꼭대기에서 발휘한 아우의 장거에 우리 모두 목이 메일 따름이네。

아우여 정상에서 만나세。 바인타브락 봉우리에서 우리를 반길 아우여。 우리산악인은 꼭 그곳에 등정하여 아우와 못다한 얘기를 나눌걸세。

진정한 山사나이 아우여, 고이 잠드소서。 결국 그대는 山속에 묻혀 영원한 山사나이가 되고말았구려。 山속에 가야할 사람이 갔는데도 왜이리 허전한가? 왜이리 눈물이 나오는가? 아우의 전장한 모습과 든든한 미소가 왜 이리도 보고싶은가? 아우와 같이갔던 대원들이 돌아와 눈물을뿌리며 꼭꼭 다시 그곳에 가겠다는 소리가 왜 이리도 슬프게 들리는가?

아우여, 진정 山속에서 나오지 않을 아우여, 고이 잠드시게, 고이 잠드시게。 우리 頂上에서 다시 만날때까지 고이 잠드시게。

李仁楨

〈80韓國마나슬루원정대장〉

잉글리쉬웨이

「紳士의나라」명성은 餘裕와 秩序의식이 바탕

曺永模

英國人들의 조직적이고 서두르지 않으며 모든일을 하나하나 순서있게, 그리고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는 생활습관을 우리들은 부러워한다。 여유를 가지고 순리적으로 시간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므로서 매사에 신중을 기하고 일을 처리한 후에도 예기치않은 후유증이나 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 하려는 그들의 생활방식을 존경한다。

백년이 넘은 住宅들이 비록 외벽은헐었고 이끼가 끼어 흉칙하게 보이지만內部기둥은 전혀 손상되지않고 원형그대로 유지되어 있는것을 우리들은 英國의 도처에서 볼수있다。

불과 몇개월간의 영국생활에서 長久한 역사속에 다져지고 저력을 가지고 세계를 주름잡았던 대영제국의 국민이나 국민성을 간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설령 장기간 생활을 해본 사람들이 많이 안다고 해도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 한것이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우리 지사와 영국「브라이톤」소재 H社와의거래내용 한토막을 소개해 본다。 우리 지사는 영국「브라이톤」에서 개최된 건강식품전시회(Health Food Exhibition)에 흉산및 흉산제품을 출품하여 현지상인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전시회가 개최된 곳이 런던이 아니고 지방도시관계로 전시장시설 일부를 임대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런데 그 시설중에는 약간의 가구류가 포함되었는데 그 임대가격이 3백44파운드41펜스였고 우리지사는 3백44파운드40펜스, 즉1펜스를 각감한 가격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해서 1펜스를 지불하지 않았는지 정확히 기억할수 없으나 생각컨대 지불할 당시 1펜스(한화 15원정도)에 대한 거스름돈이 없어서 상호간의 양해로 지불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던것이 아닌가 싶다。

전시회가 끝나고 3개월이 지나 전시회 뒷마무리도 거의 끝났을때다。 거래회사 경리직원으로부터 1펜스를 더 지불해 달라는 書信을 받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隨筆

1펜스도 法에따라 정리하려는 철저한 遵法精神에 놀라

액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이미 영수증까지 받고 대차관계가 끝난 내용이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세한 내용의 서신을 영수증사본과 함께 발송하였고 지불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항임을 명백히 주지시켰다。 그러나 3일후 다시 서신을 보내왔는데 그 내용이 매우 강경한 표현들이었다。 예를들면 만약 즉각 지불하지않을 경우에는 법적조치(Legal Action)를 취하겠다는 것등 이었다。

우리는 다시 전화를 걸어 당시 10펜스를 지불했으나 담당자가 9펜스 거스름돈이 없어 지불못하게 되었고 상호합의하에 지불하지않았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설득했으나 막무가내다ㅡ 하는수 없이 1펜스(15원)를 봉투에 넣어 보냈다。

그로부터 3일후 감사하다는 편지를 받으므로서 1펜스논쟁은 대단원의막을 내렸다。 1펜스를 정리하기 위해 양사는 무려 60펜스〈영국 국내기본우편료는 1회에 10펜스〉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생각해봐야 할것은 적은 일이라도 준법정신을 가지고 철저하게 해결하려는 영국인들의 저력이다。 그저 그럭저럭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된다는식의 사고방식은 전혀 통하지 않는것을 감지할 수 있다。

전구하나 갈아 끼우는데 무려 네사람이 필요하다는 그네들의 사고 방식을혹자는〈요령부족〉이라고 꼬집는다。

우리들 사고방식으로는 분명히 요령부족이고 외통수임에도 틀림이 없다。 우리들 중에 전구하나 갈아 끼우는데 전구가져오는사람, 사다리 가져오는사람, 끼우는 기술자, 그리고 수금원 이렇게 네사람을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바보취급을 면키어려울 것이다。

기차출발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매표구에는 초조한 표정하나 찾아볼 수 없는 수 많은 인파가 장사진을이루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 5분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기차를 타고간다。 이런 풍경은 유럽미주 어느나라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여유있는모습이다。

세계각국의 다른 인종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들 국가들을 이끌고 나가는 힘은 바로〈질서〉요, 〈여유〉임에 틀림없는것 같다。 이 (여유와 질서)는 준법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우리네 현실과 비교해 볼때 안타까울 뿐이다。

1펜스를 법에 따라 정리하려는 준법정신은 여유와 질서가 국민의식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것들을 잉글리쉬웨이(English way)라고 부르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68·經濟 昊데商社(株) 런던支社長〉

正確한 住所를 주세요

지금 당신의 住所는 정확합니까? 會報가 주소 不明된채 每回3백여부가 主人을 찾고 있읍니다。 여러분 자신과, 주위동문의 住所를 알려주십시요。 주소를 모르면 職場이나 電話番號만이라도 좋습니다。

연락처 : 모교학생회관1층 東國大學校同窓會 ☎267－8568, 267－8131 (교)465